



# 直指

## 세계로 세계로

###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 창립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直指)'의 세계화를 위해 (사)세계직지문화협회가 설립됐다. 동 협회는 지난 3월22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각 사회단체나 기업체, 경제인, 개인 회원 등으로부터 기탁금 형식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부나 충북도, 청주시 등에서도 기금을 출연 받아 100억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한 뒤 각종 직지 관련 사업과 직지찾기 포상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세계직지문화협회가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하면 현재 청주시 직지세계화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직지 관련 업무를 대부분 이양 받아 직지축제와 직지상, 직지찾기 등의 사업을 모두 직지협회에서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에는 김종규 박물관협회장, 정종택 전 농수산부장관(현 충청대학장), 이상훈 충북일보 사장을 선임했다. 또 고문에는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 강영훈·이현재·이홍구·정원식 전 국무총리,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김진현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세계화를 위해 (사)세계직지문화협회가 설립됐다. 동 협회는 지난 3월22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총회를 열고 기탁금 형식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부나 충북도, 청주시 등에서도 기금을 출연받아 100억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한 뒤 각종 직지 관련 사업과 직지찾기 포상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 과기부장관,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 류근창 고려역사선양회 명예총재, 차화준 고려역사선양회총재, 박맹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정태익 외교안보연구원본부대사, 송월주 전 조계종총무원장, 김수학 전 국제청장을 선임했다.

한대수 청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직지문화협회 창립은 청주를 세계의 문화도시로 만들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직지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회장 수락 인사말을 통해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직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인쇄출판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창립 총회에는 한대수 청주시장과

## 고문 홍우동 인쇄협회장 등 부외장 김종규 박물관협회장 회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홍재형 국회의원,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 서동욱 충북인쇄조합이사장, 손문호 서원대학교 총장, 김일중 주성대학장을 비롯 회장단과 고문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창립 총회가 끝난 후 이를 기념하는 세미나가 '직지세계화의 전 지구적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고인쇄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직지 세계화가 의미하는 우리문화의 무한가치'에 대해 기초연설을 했으며 정종택 충청대학장이 '세계직지문화협회의 역할과 직지세계화의 가능성'에 대해, 김승환 충북대교수가 '직지세계화의 의미'에 대해, 윤용중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이 '직지세계화 전략에 대한 소고'에 대해 각각 발제를 했다.